

【논 문】

## 해방 이전 화북지역 한인이주와 '생활체험'

김 주 용\*

### ┃ 차 례 ┃

1. 머리말
2. 중일전쟁 이전 한인이주
  - 1) 한인사회의 형성
  - 2) 거주지의 외연 확대
  - 3) 생활실태와 직업구조
3. 중일전쟁과 한인사회의 변화
  - 1) 화북정권의 성립과 한인사회
  - 2) 직업의 차별화와 왜곡
4. 맺음말

### 국문초록

近화북은 북경을 비롯해서 천진, 하북성, 산서성, 산둥성, 하남성 등을 일컫는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화북은 조선의용대의 활동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회영, 신채호 등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와 저항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1919년 3·1운동 전후 독립운동가들이 형성했던 한인커뮤니티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 세력의 부식과 그에 따른 친일단체의 성립으로 변형되었다. 천진뿐만 아니라 내몽고 지역도 1920년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향'이었지만 중일전쟁 이후 더 이상 향기를 느낄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침략과 저항의 한복판에서 한인사회는 또다른 굴종이 강요되는 사회로 바뀌어 갔다. 물론 일부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에서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기회도 가졌다. 본 논문에서는 화북지역 한인사회를 시기별, 세부 지역별로 그 특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중일전쟁 이전 시기의 한인사회는 독립운동 세력이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북지역 가운데 그 중심인 북경과 천진 지역은 상해지역을 비롯해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선택된 곳이기도 하다. 그 유형은 만주지역의 정세불안과 3·1운동으로 국내에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유형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생활상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은 입에 풀칠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만큼 화북지역 한인들은 ‘망국노의 처지’를 그대로 감내해야 했다. 한편 북경과 천진뿐만 아니라 산서성 대동과 장가구, 내몽고 포두까지 거주지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었다.

중일전쟁 이후 한인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침략과 굴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일제가 빠르게 화북지역은 점령하면서 한인들 역시 그 노선을 따라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거주지의 외연 확대는 또다른 굴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소자본가의 등장도 일제의 군수산업과 연계된 경우가 많았으며, 아편밀매와 같은 부정업자의 증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제의 세력권 안에서 또는 일제 기관의 영향 아래에서 운영되었던 한인단체들의 성격은 일제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한인들 가운데 무직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인사회는 건강한 모습 보다는 왜곡된 형태의 한인사회로 정형화되어 갔다.

주제어 : 화북, 신팔균, 이회영, 이자해, 부정업자

## 1. 머리말

1918년부터 1936년 천진에서 유년기를 보낸 영국인 브레인 포엘(Brian Power)은 중문판 자서전을 내면서 천진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고 회고했다.<sup>1)</sup> 영국 조계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유년기 시절의 감상은 그로 하

1) 布萊恩·鮑爾, 劉國強 譯, 2007, 『租界生活(1918-1936)』, 天津人民出版社, 5쪽. 브레인 포엘의 부친은 천진시 세관의 세무사였다. 브레인은 19세까지 천진에 살았으며, 중국을 떠난 후 천진을 네 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여금 천진에 대한 동경과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졌다. 그가 그리던 천진은 그러한 곳이었다.

천진은 지역상 화북<sup>2)</sup>에 속한다. 화북은 중국지역을 구분짓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화북, 화중, 화남 등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역사적 용어로서의 기능도 담당했다.<sup>3)</sup> 화북으로 한인들이 이주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였다. 북경, 천진을 비롯하여 내몽고지역까지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형성했던 한인커뮤니티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 세력의 부식과 그에 따른 친일단체의 성립으로 변형되었다. 천진뿐만 아니라 내몽고 지역도 1920년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향’이었지만 중일전쟁 이후 더 이상 향기를 느낄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침략과 저항의 한복판에서 한인사회는 또다른 굴종이 강요되는 사회로 바뀌어 갔다.

만주지역 한인 이주의 역사는 18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북간도를 비롯한 서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한인사회는 한인(조선인)에서 조선족이라는 중국 공민으로 위상이 달라졌을 뿐 현재도 유효하다. 이에 비해 화북지역 한인사회는 형성시기와 현재 한인사회를 비교해 보면 만주지역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일전쟁기 이주한인의 폭발적인 증가 양태는 두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규모와 커뮤니티의 질적인 면에서는 달랐다. 해방 이후 화북지역 한인들이 대부분 귀환을 택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공백상태를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인들이 메우고 있다는 점은 만주지역과 다른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본고에서 다룰 화북지역의 한인사회는 단절된 이주한인사회를 복원하는

2) 화북은 북경을 비롯해서 천진, 하북성, 산서성, 산둥성, 하남성 등을 일컫는데 본고에서는 산둥과 하남성의 한인이주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이는 필자의 게으름이 낳은 결과이다. 차후 별고로 처리할 것이다.

3) 194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환교 선무단을 조직할 때도 화북지역, 화중지역, 화남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작은 작업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화북지역 한인이주와 관련해서는 주목할만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sup>4)</sup> 이는 주로 북경지역과 천진지역 등 대도시를 주제로 다루었으며 시기도 ‘만주사변’ 이후에 집중되었다. 또한 주제 역시 한인들의 아편 밀매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일본 세력이 화북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밝히는 중요한 잣대임에 틀림없다. 다만 일본제국주의 침략성을 밝히지 못하고 한인의 마약 및 아편문제만을 거론하는 것은 자칫 한국인의 습성 및 민족성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화북지역 한인이주와 만주지역 한인이주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일전쟁 이후 화북지역 한인이주의 현황과 특징을 밝히는 데 선결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인이주를 다룰 때 한인과 일본인만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한인이주의 실전무대는 중국이다. 중국이라는 엄연히 현실적 ‘생의 그라운드’를 고려하지 않은 한인이주에 관한 연구는 충실함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점도 고려하면서 화북지역의 대도시인 북경과 천진뿐만 아니라 산서성과 내몽고 등에도 일정 부분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특히 독립운동가 『이자해자전』<sup>5)</sup>을 통해 1920년대와 30년대 화북지역의 생활체험을 일정하게 그려봄으로써, ‘나라잃은 망국노’가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생생하게 복원하는 것이 본 발표의 목적이기도 하다.

- 
- 4) 김광재, 1999, 「중일전쟁기 중국 화북지방의 한인 이주와 ‘노대농장」 『한국근현대사연구』11 ; 김광재, 2004, 「중일전쟁 이후 북경지역의 한인단체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23 ; 박강, 『화북 이주한인과 아편마약 밀매』, 『한국민족운동사연구』55 ; 손염홍, 2007, 『북경지역 한인사회 연구』, 국민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07 ; 손염홍, 2007, 「일제의 중국 화북 침략과 북경지역 한인의 마약문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28.
- 5) 이자해의 본명은 이동필이다. 자해는 중국으로 망명한 후 개명한 것 같다. 『이자해자전』은 내몽고지역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을 엿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이자해자전』의 입수 경위와 그 가치에 대해서는 한시준, 2007, 「이자해자전 해제」, 국가보훈처 참조.

## 2. 중일전쟁 이전 한인이주

### 1) 한인사회의 형성

일제는 화북지역을 ‘北支’라고 칭했다. 공간적 개념으로 화북은 대개 북경, 천진, 산서, 산둥, 내몽고 등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이곳에 한인이 본격적으로 이주한 것은 1910년대 이후이다. 흔히 만주와 대별되는 지역적 용어인 관내의 초입이 화북지역이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화북은 정치세력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주체 역시 시기마다 다르다. 심지어 1928년 국민정부가 중국전역을 통일하고 수도를 남경으로 이전하면서 북경을 북평으로 명칭을 바꾸었듯이 정치세력의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다.<sup>6)</sup>

화북지역으로의 한인이주는 1920년대까지는 주로 정치적인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이주 루트 역시 동북에 거주하거나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가 그것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관내로 들어와 화북지역에 자리잡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20년 일제가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쇄토’하다는 명목으로 진행한 이른바 ‘간도출병’은 만주지역 한인사회를 요동치게 했다. 이때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무대인 만주를 잠시 떠나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은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신팔균의 예가 대표적이다. 만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이 화북지역에 정착하는 과정과 상황을 그려보고자 했다.

신팔균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뒤로하고 북경행을 택했다. 그가 왜 북경행을 택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1920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지속되었던 일제의 만주침략 이른바 ‘간도출병’으로 서북간도 독립운동단체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1921년 여름 이후 독립운동

6) 1928년 중화민국행정구역도는 현재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가능하면 근래 통용되는 것을 따르고자 한다. 武月星, 1999, 『中國現代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41쪽.

단체는 사태를 수습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였지만 신팔균이 몸담고 있었던 신흥무관학교는 그 역사적 임무를 뒤로한 채 폐교하면서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였다. 따라서 신팔균은 만주지역에서의 활동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북경행을 택한 것 같다. 이때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와 인연을 맺었던 이세영(이천민)과 보조를 같이 하였으며, 후일 대한통의부에서의 활동시기도 이세영과 함께 하였다. 즉 신팔균의 북경행에는 서로군정서에서 활동한 육군무관학교 동문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sup>7)</sup>

북경에 도착한 신팔균은 독립운동가인 이세영, 황학수 등과 함께 북경지역 거주 한인들의 교육과 자치를 위한 한교교육회를 조직하였다. 한교교육회는 1922년 8월 30일 이세영이 주축이 되어 북경에서 조직한 한인교육회이자 자치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sup>8)</sup> 신팔균은 한교교육회의 규약을 제정하고 「부득이」라는 신문도 발행하였다. 이 교육회는 기호파가 주축이며, 선언서 등을 작성하여 중국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교육회 설립과 그 정당성을 홍보하였다. 임원으로는 신팔균을 비롯하여 성준용, 李光, 曹成煥,<sup>9)</sup> 韓世良, 趙東隱, 黃鶴秀, 李世榮, 崔泰允, 金元植, 金承煥, 李社隱, 文秉武, 趙澗松 등이 있다.

한교교육회는 위의 활동 지침을 기초로 북경지역 한인사회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먼저 재정확보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한인자치를 실현하고 이를 독립운동과 연결하는 데 있었다. 그만큼 한인

7) 신팔균, 황학수는 육군무관학교 동문으로 북경에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황학수가 김학소와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한시준, 2006, 『황학수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79~80쪽).

8) 「不逞鮮人力組織スル教育會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各地(2)』(高警 제3194호, 1922년 10월 9일)

9) 『평산신씨족보』(1992), 317쪽에는 신팔균의 장남 현충의 부인으로 조성환의 딸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이 실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족보에 올릴 정도로 밀접한 사이였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사회가 지닌 불안전성을 극복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 뿐만 아니라 신팔군은 김해산<sup>10)</sup>, 박건병<sup>11)</sup> 등과 함께 북경한교구락부를 조직하였다고 한다.<sup>12)</sup> 북경한교구락부와 한교교육회가 다른 것인지 또는 동일한 기관을 일체의 착오로 다르게 표기한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신팔군이 북경에서 한인교육 및 자치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신팔군은 중한호조사에서도 활동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sup>13)</sup>

내몽고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이자해<sup>14)</sup> 역시 일본군의 간도침략으로 서간도에서 정치활동 및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북경행을 서둘렀다. 3·1운동 이후 서간도로 망명한 이자해는 요녕성 관전현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북경으로 이주하게 된다. 한 개인의 이주 경로를 통해 전체상을 재단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이자해자전』에 나타난 심양에서 북경으로의 행로는 당시 고단한 ‘망국노’의 설움을 보여주기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자해는 먼저 부친을 북경으로 보내고 본인은 서간도의 이주생활을 정리하고 길을 재촉했다. 심양역에 도착한 그는 여관 주인의 도움으로 북경행

10) 김해산의 본명은 김정목이며, 김국빈으로 불렸다. 1888년 경북 선산출신으로 1918년 만주로 망명한 후 1919년 북경으로 가 북경한교회를 설립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1926년 북경에서 발표한 대한독립당 북경축성회 조직선언서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大獨立黨組織 北京促成會ノ宣言書發表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各地(4)』(朝保秘 제1458호, 1926년 11월 17일). 특히 의열단 북경 특파원으로 일체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容疑朝鮮人』, 97쪽).

11) 박건병은 강원도 철원출신으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도 관여 했으며, 북경 군사통일주비회 주비 위원으로서 활약했다(『北京에서의 不逞鮮人の 軍事統一會議』,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支那各地(2)』(高警 제23049호), 1921년 7월 23일).

12) 국사편찬위원회, 2001, 『韓國獨立運動史 資料』37, 122쪽.

13) 『北京在任朝鮮人ノ最近狀況報告ノ件』,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2)』(公第92호, 1924년 3월 6일).

14) 이자해는 의사로서 자신의 고향인 평북 중강진에서 개업의로 일하다가 3·1운동 이후 서간도로 망명한 인물이다.

표를 쉽게 구입하였지만 700km의 여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드디어 열차시간이 되어 차에 오르기 시작했으나 검표를 마치고 차에 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어떤 사람은 차창으로 물건을 들여보냈고 또 어떤 사람은 차창으로 엮드려 기어 들어가면서 유리를 파손하여 벌금을 내기도 했다. 이런 살벌한 가운데서도 나는 안간힘을 다하여 비록 차에 오른 했지만 빈 좌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서 있었다. 승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열차 안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다. 차 안의 공기는 나빠지기 시작했고 각종 악취가 코를 찔렀다.<sup>15)</sup>

약 15시간을 지나 도착한 북경 豊臺역에 하차하여 다시 마차로 근교인 海甸<sup>16)</sup>에 여장을 풀면서 이자해의 북경지역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만국노의 삶의 환경이니 참아야 한다’라는 현실적 중압감은 쉽게 떨쳐 버릴 수 없었다.<sup>17)</sup> 특히 만주지역과 비교해서 한인사회의 규모가 훨씬 작았던 화북지역에서는 한인들이 적응하는데 불리하였다. 이자해가 북경으로 이주할 당시 일제측에서는 북경에 도착한 한인들이 일본관헌에게 거주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만이 귀국할 때 필요한 서류증명서를 받았을 뿐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다. 이자해가 태원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할 당시 張家口 일본영사관에서 일본거류민 보호조례에 따라 달마다 의료행위 및 전염병 등에 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자해는 자신이 중국 국적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sup>18)</sup>

15) 國家報勳處, 2007, 『李慈海自傳』, 151쪽.

16) 오늘날 海澱區에 속하는 데 정확한 지점을 현재 확인할 수 없다.

17) 國家報勳處, 『이자해자전』, 153쪽.

18) 위의 책, 215~216쪽.

특히 1922년 12월 여행증명서제도 철폐 이후 북경에 진출한 한인 가운데 거주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거의 없었다.<sup>19)</sup>

또한 화북지역에 이주하는 한인들은 아주 적은 이주비용을 지참하였다. 이것은 바로 생활의 곤궁함으로 이어졌다. 북경의 경우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부인은 그 생활이 참담했다고 했다. 1922년 일시 귀국해서 북경으로 올 때 100원도 지니지 못함을 탄식했을 정도로 생활의 곤궁에 맞닿아 있었다.<sup>20)</sup> 따라서 일반인의 이주비용 역시 100원을 초과한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만주에서 재이주를 하지 않고 바로 국내에서 이주한 경우에는 보통 천진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천진은 북경으로 들어오는 입구이자 대륙에서 나가는 출구이기도 하다. 천진에는 일찍부터 일본 기업이 진출하고 있었으며, 조계지도 형성되었다. 천진은 산동을 제외하면 화북지역의 유일한 항구이자 무역업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일본선박회사로는 대판상선회사, 삼정양행, 동흥양행, 기선회사 등이 있었고, 대련·일본·청도·대만간에 선박을 운행하는 무역업자의 금융기관으로서는 정금은행·정용은행·조선은행·천진은행 등 여러 은행이 있었다.

당시 천진으로 이주한 한인에 대해 천진영사관에서는 조선내에서 경제적 불황으로 생존경쟁에 실패한 조선인이 그 활로를 해외에서 구하기 위해 이주했다고 진단했다. 그 일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1)</sup>

19) 손영홍, 앞의 책, 44쪽.

20) 李恩淑, 1983, 『民族運動家 아내의 手記』, 正音社, 46쪽.

21) 일제는 한인 이주원인을 한인의 내재적인 측면에서만 찾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애써 외면하고 한인들의 경제상황에 대해 초점을 두고 각 지역 이주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특히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한인이주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일제의 판단은 애매모호하기까지 하다. 물론 자신들의 역린을 건드릴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조선인 대부분은 조선내에서 생존경쟁에 실패한 자들로 조선내에서는 어떠한 전문 지식 혹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호구를 지속할 수 없었다. 이들은 조선내에서 선주자 혹은 여행자 등의 과장된 담화관찰 등에 따라 당 지방을 동경하여 내주자의 다수는 어떠한 자금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점차 목적지에 도달할수록 예비만을 소지하여 도래한 자들이다. 도착 후 바로 일상생활에서도 궁핍하여 연고가 있는 자 내지는 지인 동향의 자들과 의탁하여 기식 후 통제품인 물품 등을 밀매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독립하기에 이른다. 내주자의 일부분은 조상전래의 전답을 매각하여 100원 내지 500원의 자금을 휴대하고 도래하여 물품을 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sup>22)</sup>

일제로서는 한인들의 화북이주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 인식했다. 특히 아편 밀매같은 ‘부정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한인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으며, 이것이 일본인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화북지역 한인 이주의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북경의 경우 1927년 일본공사관의 조사에 의하면 북경지역 한인수는 약 500 여명에 지나지 않았다.<sup>23)</sup> 그 수는 1937년 중일전쟁 이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천진지역의 경우 1932년 말 700여 명, 1933년 말 1,400여 명이었다. 한인커뮤니티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2) 거주지의 외연 확대

화북지역 한인 이주는 북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경에 이주한 한인

22) 天津總領事館警察署, 1933,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内狀況)」

23) 「北京在留民戶口調査表(1927)」, 『管内狀況報告』, 國事顧問委員會 소장 자료. 일본공사관에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포함해서 산출하면 북경지역 한인수는 이 보다 많을 것이다.

들은 오늘날 望京(왕징)처럼 한인타운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또한 천진이나 상해처럼 조계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개척해 나갈 수 없었다.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인과 같은 지역에 혼재하여 거주하였다. 특히 상인의 경우 신속한 이동과 빠른 자금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주로 여관을 이용하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여관은 正陽門 밖에 위치하였다.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활동면에서 훨씬 자유로웠다.<sup>24)</sup> 일반 민박을 이용하는 경우 중국 관헌의 감시와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여관을 주로 이용하였다.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이회영의 집은 회합의 장소이자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 하지만 북경주재 일본공사관의 감시로 자주 거주지를 이전해야 했다. 이회영은 처음 후고루원 골목에 집을 얻었는데 북경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으로 바뀌면서 거처를 서직문 이안정으로 옮겼다. 여기에는 신채호, 김창숙, 유자명, 정화암, 이을규, 이정규, 백정기 등이 왕래하였으며,<sup>25)</sup> 특히 아나키스트의 활동 거점이 되었다.<sup>26)</sup> 신채호의 거주지는 당시 석등암이었으며, 일정 거주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제 정보문서에 의하면 ‘동가식 서가숙’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sup>27)</sup>

북경지역에서 일정한 집거구를 형성하지 못한 한인들은 주변 지역 예컨대 해전, 산서성 大同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이회영 처럼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북경과 천진을 오가면서 거처를 정한 이들도 있지만<sup>28)</sup> 대체적으로 거주지는 경제적인 원인 및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이전하는 경

24) 손염홍, 앞의 책, 43~44쪽.

25) 유자명의 경우에는 그가 천진으로 가기 전 한동안 우당 이회영 집에서 생활하였다(유자명, 『한 혁명자의 회억록』, 98쪽).

26) 국가보훈처, 2003,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1, 141쪽.

27) 『北京天津及附近朝鮮人ノ狀況報告書進達ノ件』,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3)』 1925년 3월 20일.

28)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69쪽.

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이자해의 경우, 북경을 떠나 해전에 정착하였다. 해전에 정착한 이자해는 북경에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려고 성 안의 유관기관을 찾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관리의 부정부패에 직면했다.<sup>29)</sup>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이자해는 亞新醫院을 개설하여 병원 진료를 시작했다.<sup>30)</sup> 이자해는 의료사업과 함께 해전농장, 즉 자구원<sup>31)</sup> 경영에도 관여하였다.

해전농장은 안창호가 1910년대부터 추진했던 독립운동기지 건설 가운데 하나로 설치되었던 곳이다.<sup>32)</sup> 해전농장의 경영 주체는 안창호, 안정근, 김승만, 이동필 등 4인이었으며, 주로 수수 등을 파종하여 수확물을 거두었다.<sup>33)</sup> 하지만 해전농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북경대학에 매각되면서 그곳에 종사한 20여 명의 한인들은 새로운 직업과 거처를 마련해야만 했다. 이자해의 부친은 해전농장이 해체되자 국내로 역귀환하였다.<sup>34)</sup>

북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화북지역 한인사회는 점차 張家口와 대동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갔다. 장가구는 내몽고 및 시베리아에서 북경으로 올 때 거치는 교통의 요지이다. 북경과 장가구간 철도는 1902년에 부설되었고, 1921년 이후 포두까지 이어졌다. 장가구는 일찍이 1911년 독립군들이 이곳을 거쳐 내몽고로 이주하였으며, 특히 1924년에는 서북군관학교가 설치되면서 한국독립운동가 10여 명이 수학하였다.<sup>35)</sup> 장가구에는 金仁國이 十金醫院을 운영하고 있었다.<sup>36)</sup> 이곳에서 그는 중국인과 몽고인, 일본인까지 진료했

29) 國家報勳處, 앞의 책, 157쪽.

30) 「安昌浩及海甸農場에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3, 1924년 8월 2일.

31) 치구원이라고도 함(위의 자료)

32) 안창호는 1910년대 밀산의 십리와를 비롯해서 치치하얼 북서쪽에 위치한 용강현에도 농장을 설치하여 독립운동기지로 건설하려고 했다.

33) 「安昌浩及海甸農場에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3, 1924년 8월 2일.

34) 國家報勳處, 앞의 책, 173쪽.

35) 『在北支朝鮮人概況』, 55쪽.

36) 「北京天津及附近朝鮮人ノ狀況報告書進達ノ件」,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3)』

며, 많은 자산을 확보했다고 한다.<sup>37)</sup> 한인사회의 규모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장가구는 내몽고와 북경지역을 잇는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집약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경유지로서의 기능을 한 것 같다.

이에 비해 綏河省(현 내몽고자치구 일부) 包頭는 황하의 수운으로 농업 용수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일찍이 안창호와 박용만 등이 주목했던 곳이다.<sup>38)</sup> 1923년 안창호는 포두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조병준과 申禹鉉을 파견하여 농장을 개척하였다.<sup>39)</sup> 이 농장을 배달농장이라 하였다. 위의 두명 이외에 강우진, 최준, 허선 등 5명이 주축이 되어 자금 3천원으로 포두에서 약 60km 서쪽에 자리를 잡았다.<sup>40)</sup> 당시 농장 경영에 참여한 한인은 100여명에 달하였다.<sup>41)</sup> 이 농장은 1937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중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해서 한인들이 구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천진에서 이주한 金光이 세운 靑山의원과 경성에서 온 김진성이 세운 濟衆의원이 중국인과 한인을 상대로 영업하였다.<sup>42)</sup> 포두지역의 한인사회는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기지 개척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20년대말까지 이주한인의 행

---

1925년 3월 20일.

37) 북경에 거주한 백정기가 장가구에서 찾은 의원이 바로 김인국이 운영하는 의원이 아닌가 싶다(정화암, 앞의 책, 72쪽).

38) 『北京天津及附近朝鮮人ノ狀況報告書進達ノ件』,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3)』 1925년 3월 20일.

39) 『東亞日報』1923년 11월 28일자. 「내몽고포두에서 신한촌 경영」

40) 2005년 독립기념관 실태조사시 확인. 내몽고조선측연구회 명예회장 廉皓 선생(74세)의 사진 현지답사 결과 중만일대에서는 조선족의 거주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거기서 남쪽 황하 방향으로 8km 쯤 내려가 趙家마을이라는 곳에 조선족 일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지에는 조병준의 동생 趙秉涉의 손자가 되는 趙東春씨(63)를 비롯해 3대 6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다. 조동춘씨는 집안의 족보를 비롯해 할아버지의 유품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의 증언에 의하면 조병준 선생 유족들은 해방후 모두 귀국하고, 형 東哲이 백혈병을 앓는 관계로 자신의 부모와 3형제만이 남았다고 한다. 조씨 일가가 과거에 살던 배달농장 자리는 조동춘 씨의 집에서 서쪽으로 2km 쯤되는 지점에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그곳을 ‘上海地’라고 부르고 있었다.

41) 『內蒙古包頭鎮地方ノ狀況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37)』(1923년 11월 12일)

42) 위의 자료.

렬은 지속되었다.<sup>43)</sup>

천진의 경우, 거주지의 외연확대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데, 천진지역은 1900년 8개 연합국이 점령한 후 6개의 조계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10월혁명 이후 러시아가 조계를 취소하면서 프랑스·영국·일본·이탈리아 4개 조계지가 존속하였다. 천진지역 한인 거주지는 주로 조계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회영과 같은 독립운동가 및 유학생 들은 주로 프랑스 조계에 거주하였으며, 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일본 조계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sup>44)</sup> 독립운동가 유자명이 1923년 겨울 천진에서 정착한 곳도 프랑스 조계였으며, 이곳을 기점으로 거류민단을 조직하고 도산 안창호를 초청하여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을 고취시킨 곳도 프랑스 조계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하지만 정착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거주 가옥의 임차 및 매입은 현지법에 의해 적용되기 때문에 이주 한인들이 정착 초기에 많은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 다반사였다.<sup>46)</sup> 일본인의 경우에도 토지가옥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로 동경토지건물회사 소유 가옥에 거주하거나 일부는 중국인 소유 가옥에 거주할 정도로 거주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sup>47)</sup>

### 3) 생활실태와 직업구조

1920년대 화북지역 이주한인들의 곤궁함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 자산가 및 일시적인 거주자들은 비교적 생활상태가 양호했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

43) 「包頭附近鮮人狀況ニ關スル件」, 『滿蒙 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 雜件(1)』(1928년 5월 10일)

44) 유자명, 『한 혁명자의 회억록』, 100쪽.

45) 유자명, 위의 책, 101쪽.

46) 李恩淑, 『民族運動家 아내의 手記』, 62쪽.

47) 天津總領事館警察署, 「管内狀況報告」(1927년).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1927년 독립운동가 정화암은 북경에서 상해로 가는 도중 천진에 거주하고 있던 이회영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南開의 우당 이회영의 집을 찾아 갔더니 식구들의 생활이 여전히 어려워 그 참상이 말이 아니었다.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어 누워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圭淑이의 옷까지 다 팔아서 입에 풀칠할 정도여서 누구하나 나다니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sup>48)</sup>

이것은 비단 우당 이회영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자해가 북경에 정착한 후 병원을 개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다.<sup>49)</sup> 1920년대 화북지역의 화폐상황은 불안하기 그지 없었다. 이자해가 산서성 대동과 태원에서 진료할 때 진료비를 산서성 수표로 받았다가 이후 그 가치가 절반 이하로 폭락하면서 생활고가 더욱 가중되었다.<sup>50)</sup> 이렇듯 한인들이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군벌들의 역학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sup>51)</sup> 당시 한인들의 생활 정도는 국내 농부의 처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었다.<sup>52)</sup>

불안정한 정세와 생활고 그리고 중국인들의 차별 또한 이주 한인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인 유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

48) 정화암, 앞의 책, 73쪽.

49) 북벌이 진행되면서 화폐가치는 변동폭이 컸으며, 1928년 북벌 완료 후에 국민정부는 법정통화인 법폐의 성립을 선언했다. 그 해말 중앙은행이 설치되었지만 1930년대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화폐가치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었다(岩武照彦, 『近代中國通貨統一史』上, みすず書房, 1990, 5쪽).

50) 國家報勳處, 앞의 책, 214쪽.

51) 國家報勳處, 위의 책, 205쪽.

52) 天津總領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内狀況)」, 1933년.

서 다방면에서 독립운동의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지만<sup>53)</sup> 일반인들은 일본인들의 감시와 타협 속에서 중국인들과의 갈등 앞에 놓이게 되었다.<sup>54)</sup> 특히 안정된 직업보다 한시적인 직업군에 속한 한인들의 경우에는 현지 사회에 적응하는데 중국인들과의 반목은 치명적이었다.<sup>55)</sup> 1920년대까지 화북지역의 한인들 직업군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곧 전문성이 결여된 도시 생활은 도시 하층민으로 편제되는 수순임에 틀림없다. 다음은 중일전쟁 이전 화북지역 한인 직업과 상거래 기관을 정리하였다.

<표 1> 중일전쟁 이전 한인 직업 현황

북경(1933)			천진(1933)		
직업	호수	비고	직업	호수	비고
의사	2		의사	2	
치과의사	2		조계국원	5	
약기상	1		우육수출업자	1	
요리점	4		토목건축업	1	
백미상	1		자동차대부업	1	
양봉재봉업	1		매약상	1	
냉면업	2		상점원	2	
두부제조업	1		직공	6	
신문취급판매업	3		조계내요리점업	5	
골동상	3		작부	41	
인삼취급점	2		조계외특별1구 요리점	2	미군 대상
접대부	14		동국자 요리점	1	프랑스군 대상
무직	201		혼업부수	71	

\* 北平警察署, 「1933년 管内狀況報告書」. 天津總領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内狀況)」 1933년.

53) 손엽홍, 앞의 글, 54쪽.

54) 北平警察署, 「1933년 管内狀況報告書」.

55) 『在北支朝鮮人概況』참조

북경지역 의사, 치과의사, 요리업자, 악기상은 이미 중국인으로 귀화한 자들로 중국관헌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였다. 또한 일정하게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고 있었다.<sup>56)</sup> 특히 요리점을 경영하는 경우 주로 미군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이자해의 지인 박실녀가 운영한 ‘경성식당’과 도산의 지인 김우경이 운영한 식당도 미군을 상대로 영업하였다.<sup>57)</sup> 당시 1920년대 북경에는 미군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상대로 한 사업이 많은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33년 말 당시 자산 1만원 이상 보유자는 4명이며, 1천원 이상은 11명이었다. 특히 500원 정도의 자산을 가진 자들은 헤로인 등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었다.<sup>58)</sup> 무직 가운데 극빈자는 40호 정도였다.

천진지역은 북경과는 달리 조계지역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무대로 활동하는 직업군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1933년 천진 거주 한인의 80% 정도가 무직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편과 같은 금지품목을 취급하였다는 점에서는 북경과 유사하다.<sup>59)</sup> 특히 천진은 무역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한인작부들이 북경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sup>60)</sup> 천진 역시 정업 종사자 보다 부정업 종사자가 많다는 것은 한인사회가 불안하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1929년 말 천진지역 한인 가운데 몰핀 중독자가 20% 정도로 생활의 궁핍함뿐만 아니라 희망조차 포기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sup>61)</sup> 일본 정보문서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 및 정착지 부적응자를 천진영사관에서 국내로 송환시키려고 하는 한인들이 달마다 30여 명을 헤아린다

56) 北平警察署, 「1933년 管内狀況報告書」.

57) 國家報勳處, 앞의 책, 170, 177쪽.

58) 北平警察署, 「1933년 管内狀況報告書」.

59) 天津總領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内狀況)」 1933년.

60) 1927년 조사 당시에는 50여명의 한인 작부가 있었다(天津總領事館警察署, 「管内狀況報告」(1927년)).

61) 『警察事務概況報告ノ件』, 1931년 2월 7일.

고 했다.<sup>62)</sup> 따라서 이주 한인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해당 영사관에서는 거류민단과 협력하여 한인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논리를 폈다.<sup>63)</sup>

사회적 고립 속에서 한인들은 또다른 의지처를 찾게 되었다. 바로 일본인 거류민회였다. 1933년 북경지역 일본인 거류민회의 회원은 502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한인은 84명이었다.<sup>64)</sup> 전년에 비해 한인은 56명 증가하였다. 한인이 일본인거류민회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생활안정이며, 아동 교육을 위해서이다. 1929년 천진지역 총영사관에서도 한인간의 친목과 조화를 내세워 일본 조계 내에서 조선인친목회를 개설하였다. 일본영사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무전여행자, 극빈자 구제, 국내 송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sup>65)</sup> 하지만 일제는 일본거류민회의 입회뿐만 아니라 친목회를 경영하기 위해 한인 유치원을 설치하였다고 선전했는데, 이는 식민지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충량한 신민’의 양산을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천진 조계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사회에서 한인을 ‘준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천진에는 일본인 민단과 연계된 한인 취학 학교들이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는 천진상업학교에 8명이 재학하였으며 천진일본고등여학교에도 7명이 수학하였고 가장 많은 곳은 천진일본소학교 심상과로 89명이었다.

일본거류민회 입회로 한인들은 중국인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중국의 이른바 ‘구망운동’이 전개되면서 화북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일본 거류민단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sup>66)</sup> 일제가 1932년 5월 천진

62) 위의 자료.

63) 天津總領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内狀況)」, 1933년.

64) 北平警察署, 「1933년 管内狀況報告書」.

65) 天津總領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内狀況)」, 1933년. 구제 및 송환인원은 70인이며, 구제액은 430원이었다.

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북경시내로 파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sup>67)</sup> 일제의 만주침략과 중국 구국운동의 확대로 이주한인은 이중적 곤란을 겪게 되었다.

### 3. 중일전쟁과 한인사회의 변화

#### 1) 화북정권의 성립과 한인사회

중국을 둘러싼 열강들의 세력균형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파열음을 냈다. 북경을 침략하면서 개시된 중일전쟁으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그 동안 소극적으로 전개했던 항일전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노구교에서 시작된 전쟁은 북경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북경이 전란의 소용돌이에 빠지자 한인의 상당수는 일본 관헌에 의탁하여 생활했다.<sup>68)</sup> 하지만 대규모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만주 및 국내에서 대규모 이주가 진행되면서 규모면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 갔다.

중일전쟁 이전에는 화북에 기찰정권과 기동자치정부가 존재하였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전쟁 이후 기찰정권은 송석원 등 29군의 패퇴에 따라 자연스럽게 궤멸되었으며, 정권 책임자가 부재하여 치안도 어지러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천진에는 전군무총리 高凌靄를 위원장으로 하는 천진치안유지회가 성립되었으며,<sup>69)</sup> 북평에는 江朝宗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평치안유지위원회가 만들어졌다.<sup>70)</sup> 일제는 현지 안정을 위해 관동군 1개

66) 天津總領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内狀況)」 1933년.

67) 손엽홍, 앞의 글, 132쪽.

68) 손엽홍, 2007, 『북경지역 한인사회(1920~1948)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67쪽.

69) 『每日申報』, 「天津治安維持會 委員長에 高凌靄氏」 1937년 8월 2일자.

70) 「更生支那의 建設報」 『在滿朝鮮人通信』 79호, 28쪽.

사단을 동원하였다.<sup>71)</sup> 이로써 1937년 7월 29일 북경이 함락되었으며, 일제에 의해 북평시지방유지회가 조직되고 새로운 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괴뢰정부인 중화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화북지역을 국민정부에서 분리시키려고 했다.<sup>72)</sup> 일제는 빠르게 점과 선을 연결하는 대륙침략정책으로 1940년 3월 남경에 왕정위를 내세워 중화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북경은 ‘화북정무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sup>73)</sup>

화북지역에서의 산업개발은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제와 화북정권은 1939년 3월 王國敏을 회장으로 하는 ‘日支經濟協議會’를 발족시켰으며, 임시정부에서는 실업제 구제부를 따로 설치하여 엔블럭 경제의 걸림돌을 제거하려 했다.<sup>74)</sup> 당시 협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1941년까지 제1기로 하는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석탄개발 등 광업자원 개발 및 교통 통신설비의 정비와 물가수급, 또 일제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sup>75)</sup> 한편 일제가 세운 통합기관인 중화민국연합위원회에는 1939년 9월 22일 북경에서 성대한 성립전례식을 거행하고 그 회의에서 공통정무인 체신, 금융, 해관, 납세, 염무, 문교 및 사상 대책 등의 사항에 대한 방침을 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은행 발행권을 통일하여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는 동시에 구통화관리방법을 공포하였다.<sup>76)</sup>

대륙 낙토라는 선전을 믿고 만주지역에서 재이주한 한인들로 북경지역 한인사회는 중일전쟁 이전과는 달리 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주로

71) 中央檔案館, 『華北事變』, 中華書局, 2000, 852쪽.

72) 손염홍, 2007, 앞의 글, 168쪽.

73) 화북의 신정권은 1937년 12월 14일 성립, 중화민국임시정부로 북경에서 성립, 국민정부가 항일과 용공을 정책으로 함에 대하여 임시정부는 당연 친일과 방공을 기치로 하였다.

74) 『北京益世報』, 「臨時政府各會部救濟失業人士」, 1939년 5월 3일자.

75) 「北支建設 1周年의 足跡」, 『在滿朝鮮人通信』 62호,

76) 「華北建設에 並行하는 新幣制의 確立完成」 『在滿朝鮮人通信』 65호, 25-26쪽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다. 중일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일제가 치안을 장악했지만 한인들은 손쉽게 돈벌 수 있는 이른바 ‘한탕주의’에도 몰두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북경의 한인들은 사업규모 면에서도 일본인에 비해 영세한 편이었지만 한인들은 전쟁 특수 속에서 비교적 자금 회수율이 빠른 소매업에 종사하였다.<sup>77)</sup> 중일전쟁 이후 화북지역 한인이주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일본군의 전선 확대로 한인들은 그 노선을 따라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0년 화북지역 한인이주 현황

지역	호수	인구	전체인구대비(%)	비고
북경	6,029	17,218	25.2	
천진	4,452	18,421	26.9	
장가구	1,179	3,166	4.6	
석가장	1,843	8,624	12.7	
태원	1,745	6,305	9.1	
호화	319	985	1.5	내몽고 호화호특
제남	1,009	3,569	5.2	
청도	627	2,582	3.7	
서주	1,956	7,060	10.3	
지부	179	532	0.8	연태
합계	19,338	68,462	100	

\* 『在北朝鮮人概況』, 1940, 15~16쪽.

\* 지역은 대사관 및 영사관 설치지역임

중일전쟁 직전 북경과 천진의 인구가 각 1,500명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중일전쟁 이후 화북지역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동북지방에서의 재이주, 국내에서의 이주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북경과 천진은 한인 이주민이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장가구와 석가장 지역을 합치면

77) 김광재, 「중일전쟁 이후 북경지역의 한인단체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34쪽.

하북지역에만 70%의 한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독립운동세력들은 일제의 침략을 피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았다. 이자해의 경우 산서성 대동이 일제에 의해 함락되자 10년 생활을 청산하고 내몽고 포두로 이동하였다.<sup>78)</sup> 당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목적지가 포두이기 때문에 수원역에 도착한 후 다시 차를 갈아타야 했다. 그러나 차량부족으로 인해 우리는 차를 탈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 근처에 머물며 무기한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이곳에서 열차 역 책임자와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다. 다행히 그의 도움으로 작은 군용차를 타고 순조롭게 포두에 도착했다. 포두에 도착한 우리는 잠시 모 친척 집에 머물렀으나 사람이 너무 많고 늘 잡음이 생겨 결국 며칠만에 부근에 있는 방을 빌려 이사했다.<sup>79)</sup>

포두로 이동한 지 한달만에 일본군이 포두를 점령하자 이자해는 다시 河套와 五原으로 근거지를 이전하였다.<sup>80)</sup> 이자해는 직업이 의사이며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피해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중일전쟁 이후 화북지역 한인 의사수가 66명으로 적지 않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로서는 화북지역의 전선확대와 함께 전선의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수의 한인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조선총독부의 촉탁의의 증설과견을 검토하기까지 했다.<sup>81)</sup>

한편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의 세력을 이식하기 위해 북경 조선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sup>82)</sup> 북경조선인회는 1933년 창

78) 國家報勳處, 앞의 책, 248~249쪽.

79) 위와 같음

80) 國家報勳處, 위의 책, 250쪽.

81) 『在北支朝鮮人概況』, 31쪽.

립되었으며, 주로 조선총독부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황국신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인에 대한 위생, 구호 등의 사무를 담당했다. 1938년 일본 민단법과 내선일체의 방침에 따라 해산되기까지 한인 지배 강화정책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대일본국방부인회 조선분회, 화북반도인협회, 북경협력회, 금요회 등의 사회단체가 설립되었는데 대부분 일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독립운동단체들이 거의 와해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북경의 한인들은 일본군의 전쟁에 협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이 와중에도 일부는 독립운동세력과의 끈을 놓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중국의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한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는 화북방면으로 조사반을 파견하여 당지의 문화,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한인의 대륙진출에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83)</sup> 일제로서는 이주한인들이 화북지역에서 활동해야 하는 당위성을 흥아성업의 완성에 있다고 선전했다.<sup>84)</sup>

봉천의 興亞協會에서는 만주지역 한인뿐만 아니라 국내 한인들이 본격적인 ‘대륙진출’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명앞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다.<sup>85)</sup> 즉

82) 북경지역 한인단체에 대해서는 김광재, 앞의 글, 242~256쪽 참조.

83) 『在滿朝鮮人通信』 72, 91쪽.

84) 「朝鮮總督府에서 中日戰爭에 대한 認識」, 『在滿朝鮮人通信』 76호, 23쪽. 65호 통신 40쪽. 흥아협회에서는 일본의 화북지역 통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먼저 일본민족 국가의 산업고도화의 목표 아래 첫째 일본중공업 건설을 위하여 중국중공업자원의 개발, 둘째 일본중공업재편성의 과정에서 내지농산물 감소를 만주와 중국에서 보충, 셋째 일본의 경공업의 설비는 중국에 이행하게 하고 일본의 소비품의 수요를 중국산업에 구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동아의 국방을 위한 협동이란 목표 아래 첫째 동아권을 일체로 하여 국방을 완성케 하기 위해 日滿支는 군사적으로 인적, 물적 방면에 협동, 둘째 방공을 위한 지역에는 각기 국방시설 설치, 셋째 동아의 지역에서 노동생산가치가 서구의 그것과 평등하게 교환되는 체제하에 세계경제에 日滿支의 요구를 제기 할 것 등이다.

일제는 한인이 개척자임을 강조하면서 화북으로의 이주를 더욱 독려했다. 특히 한인들이 ‘제국의 신민’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화북 각지에 ‘친일세력’의 부식을 위해 힘쓸 것을 강조했다. 창씨개명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이다.<sup>86)</sup> 이처럼 한인이주는 자율과 강제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sup>87)</sup> 1945년 내몽고 포두와 수원에만 한인 청년 2,000여 명이었던 사실에서 자발성 보다는 강제성이 이주의 더 중요한 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88)</sup>

## 2) 직업의 차별화와 왜곡

중일전쟁 이후 새롭게 재편된 한인사회는 먼저 일본군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으며, 한인들의 직업 역시 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화북지역 한인사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경과 천진지역은 직업면에서도 중일전쟁 이전과는 그 다양화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먼저 한인사회가 팽창하면서 직업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전시경제 속에서 특수를 잡은 자본가들도 등장하였다. 화북지역에서 10만원 이상의 자산가들은 북경 9명을 비롯해 26명이었다. 그 가운데 50만원 자산가도 5명이나 되었다.<sup>89)</sup> 金(子)政雄은 광업에 종사하면서 5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김연수와 같이 만주와 화북에서 일본세력의 협력을 받아 자산을 형성

85) 홍아성업과 동아민족의 단결이라는 구호는 언론을 통해 화북지역으로 퍼져 나갔다(『新天津報』, 1943년 7월 9일자).

86) 『在北支朝鮮人概況』, 51~52쪽. 1940년 6월 현재 북경을 비롯한 한인들의 창씨 개명은 10% 정도였다.

87) 손염홍, 앞의 글, 2007, 172쪽.

88) 國家報勳處, 『이자해자전』, 336쪽. 1939년 5월 박영희, 김동인, 임학수 등이 북경을 비롯하여 화북지방에 일본군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여행한 후 좌담회를 통해 화북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이들은 일본군의 전황을 소설로 창작할 것을 담담하게 말했다(『文壇使節 歸還報告, 皇軍慰問次 北支에 단여와서』, 『三千里』, 11권 제7호, 1939).

89) 『在北支朝鮮人概況』, 17~18쪽.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90)</sup> 즉 군과 기업체의 유착관계가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940년 화북지역 한인 직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화북지역 한인 직업현황(1940년)

직업	호수	인구	비고	직업	호수	인구	비고
농업	1,079	4,390	노대농장 포함	신문판매	5	15	
어업	290	652		두부제조	4	7	
금융업	28	101		광산업	4	17	
보험중사원	7	26		간판업	11	24	
질옥업	92	353		관상업	2	6	
인쇄업	27	122		연와제조업	8	18	
사진	133	467		다방업	4	16	
운송	28	207		하숙대여	33	116	
창고	12	102		식료제조	5	13	
세탁	78	338		주유업	12	29	
이발	34	112		면화상	2	2	
대서	13	30		초자상	7	31	
제과	56	193		유기장업	1	5	
곡물판매	169	1,391		제화피혁	10	44	
철공소	3	24		자전거	10	37	
안경시계	43	148		군위안소	11	38	
악기상	9	29		직물업	4	4	
천막상	1	33	공장	정미업	7	56	
가구상	18	38		수육판매	12	39	
전기자기구상	19	63		롤크스	1	2	
문방구	12	61		석유판매	1	2	
재목상	20	132		도기상	1	2	
금물상	6	32		이물상	1	1	
약종상	70	260		재봉업	4	4	
고물상	66	211		섬유공업	2	4	
석탄상	19	74		전신전화중사원	9	25	

90) 『在北支朝鮮人概況』, 39~40쪽.

직업	호수	인구	비고	직업	호수	인구	비고
양품잡화상	97	343		선박종사원	20	83	
식료잡화	871	2,716		면타업	3	13	
황물잡화	227	763		해산물상	20	133	
잡화행상	235	447		채소종자상	3	12	
여관업	107	421		측량사	1	4	
중개업	10	54		고력공급	2	7	
누제조업	6	28		도장업	6	13	
무역상	92	416		석림제조	1	3	
안마	2	7		철도종사원	2	2	
미용원	1	5		음식점	150	628	
기계판매	8	44		작부	363	1,530	
광고	1	4		요리점	258	820	
제승	4	20		예기		98	
카페	29	122		여급		263	
의사	56	223		목사	10	35	
관리	253	633		공리	277	641	
은행회사원	1,490	3,821		토목종사원	17	22	
운전수	47	56		여중	4	7	
견습간호부		1		치과견습생	1	1	
요리인	11	27		창기	130	282	
파자적인	4	6		이발적인	2	2	
교원	45	88		의사조수	4	8	
점원	1,160	2,921		군중사원	585	1,302	
전공	4	7		대공좌관	214	469	
양복적인	9	19		일용직	435	903	
직공	189	634		외교원	2	2	
토공	5	7		기타	881	2,882	
무직	4,331	14,199		토목건축	196	494	
자동차	44	267		양복상	119	533	
홍행업	6	33		산파업	3	5	
통역	3	5					

\* 『在北支朝鮮人概況』, 1940, 10~17쪽.

화북지역의 다양한 한인 직업군 가운데 농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종사원과 식료품 잡화상, 잡부 순이다. 농업 부분이 많은 것은 주변에 노대농장과 같은 대규모 농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며, 작부 등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본군 전선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무직자가 14,000여명이 있다는 것은 화북지역 한인사회에서 직업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북지역에서 한인 무직자와 부정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자 북경, 천진총영사관 및 기동정부에서는 이들의 처리 문제에 고심하였으며, 노대농장은 그 결과물의 하나였다.<sup>91)</sup>

한편 아편은 한인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의 하나였다. 고단한 ‘타향살이’를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노린 한인들이 쉽게 접근한 것이 禁제품 즉 아편과 같은 중독성 물품이었다.<sup>92)</sup> 물론 아편이 한인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중국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한인 아편취급자들의 행태는 중국인들의 눈에도 결코 호의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정업자의 정업전환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선전할 정도였다. 심지어 일본인과 단순 비교해서 한인들의 나쁜 습성이 마치 원래부터 우리 민족의 습성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꺾기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sup>93)</sup> 『재만조선인통신』에 실린 기행문의 일단을 보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내가 처음으로 산해관을 지날 때 몹시 느낀 것은 기차가 비좁으리만치 드러안즉 조선인 소부의 행군이였다. 곁에 안저서 그들의 하는 말 사투리를 들으면 조선13도가 거진 모인 모양이였다. 황군의 진출하는 곳마다 값없는

91) 『在北支朝鮮人概況』, 31쪽. 노대농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김광재의 앞의 글(1999) 참조. 부정업자의 전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데 점에서 만주지역 안전농촌과 노대농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92) 「文壇使節 歸還報告, 皇軍慰問次 北支에 단여와서」, 『三千里』, 11권 제7호, 1939)

93) 『在滿朝鮮人通信』 72, 1939년, 111쪽.

우슴의 꽃이 피어나는 모양이다. 민족의 수치를 더할 뿐으로 그다시 명예될 것도 없는 것이다. 외국인의 안목으로 본다면 조선어머니는 딸을 길러서 모조리 매소부로 내어 돌린 것 같이 보일 것이다. 그다음 둘째로 느낀 것은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촌 구석에까지 동포가 진출하여 본토인을 상대로 양행을 경영하는 사실이었다. 만주사변 전후로 일시 만주에도 양행이 성행하여 부정업자를 다시 생산하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였다. 그 반면에 견실하게 대지개척에 공헌한 동포가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중략) 금일과 같이 재지 동포가 전혀 본토인의 나쁜 습속에 승하여 그 고혈을 착취하기에 여념이 없고 뒤에 오는 동포야 어찌되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악성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가 하면 그야말로 동포의 적이요 인류의 적이다. 화북에 먼저 왔다는 선발대가 양행방 구석에서 코를 골고 시찰하는 선배 역시 그 모양이니 추호만치라도 민족의 흥을 희망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려는 자라면 개탄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sup>94)</sup>

일제로서는 한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고 하였다. 동아신질서의 구축과 ‘제국신민’의 영예로운 지위를 이주한민에게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을 식민지화하려는 해양세력의 진출을 저지하고 동양평화를 수립하는데 결정적 동력으로서 한인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부정업과 같은 ‘악성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인의 자존을 지켜야 한다는 부정업에 대한 경계가 바로 시정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마약밀매 등에 일제의 ‘후원’이 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sup>95)</sup> 일제가 만주지역에서 한인청년들을 이용해서 ‘항일세력’을 제

94) 신민회 기동도 지도부 강영근의 글 복지에 오는 동포에 일언(『在滿朝鮮人通信』 74호, 39쪽).

95) 손염홍, 2007, 앞의 글, 187쪽.

거하고자 했듯이, 화북지역에서도 한인들을 이용하여 중국인들에게 아편중독자를 많이 양산하게 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제가 침략과 통치 속에서 취했던 이주한인 정책의 일정한 패턴을 화북지역에서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음을 한인의 부정업과 연결하여 그 일단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 4. 맺음말

화북지역 한인사회는 만주지역과는 달리 1910년대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일제로서는 만주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밀접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화북은 한국독립운동과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북경을 비롯해 천진과 내몽고 등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이미 1910~20년대 한인사회 형성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 ‘만주사변’과 특히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한인사회는 그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 특히 중일전쟁 이전까지 독립운동 세력이 한인 커뮤니티의 주류였다면 이후에는 일제에 의해 부식된 ‘친일세력’이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일전쟁 이전 시기의 한인사회는 독립운동 세력이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북지역 가운데 그 중심인 북경과 천진 지역은 상해지역을 비롯해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선택된 곳이기도 하다. 그 유형은 만주지역의 정세불안과 3·1운동으로 국내에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유형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생활상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은 입에 풀칠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만

큼 화북지역 한인들은 ‘망국노의 처지’를 그대로 감내해야 했다. 한편 북경과 친진뿐만 아니라 산서성 대동과 장가구, 내몽고 포두까지 거주지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었다. 그것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

둘째, 중일전쟁 이후 한인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침략과 굴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일제가 빠르게 화북지역은 점령하면서 한인들 역시 그 노선을 따라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거주지의 외연 확대는 또다른 굴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소자본가의 등장도 일제의 군수산업과 연계된 경우가 많았으며, 아편밀매와 같은 부정업자의 증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제의 세력권 안에서 또는 일제 기관의 영향 아래에서 운영되었던 한인단체들의 성격은 새삼 논할 필요없이 일제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약 8년간 화북지역에서 보여준 한인들의 친일 형태는 어쩌면 당대 중국인들에게는 ‘고정된 거울’이었는데도 모른다. 특히 중국인들의 이주한인에 대한 인식은 해방 후에도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해방 후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일부가 화북지역에서 그대로 정착한 것은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華北建設에 並行하는 新幣制의 確立完成」『在滿朝鮮人通信』65.
- 「文壇使節 歸還報告, 皇軍慰問次 北支에 단여와서, 『三千里』, 11권 제7호, 1939
- 「不逞鮮人力組織スル教育會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各地(2)』  
(高警 제3194호, 1922년 10월 9일)
- 「大獨立黨組織 北京促成會ノ宣言書發表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  
那各地(4)』(朝保秘 제1458호, 1926년 11월 17일)
- 布萊恩·鮑爾, 劉國強 譯, 『租界生活(1918-1936)』, 天津人民出版社, 2007
- 天津總領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内狀況)」1933.
- 「北京在留民戶口調査表(1927)」, 『管内狀況報告』,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 「安昌浩及海甸農場에 二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3, 1924년 8  
월 2일.
- 「北京天津及附近朝鮮人ノ狀況報告書進達ノ件」,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  
(3)』1925년 3월 20일.
- 岩武照彦, 『近代中國通貨統一史』上, みすず書房, 1990
- 天津總領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内狀況)」, 1933년
- 北平警察署, 「1933년 管内狀況報告書」
- 武月星, 『中國現代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1999
- 한시준, 2006, 『황학수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국사편찬위원회, 2001, 『韓國獨立運動史 資料』37
- 李恩淑, 1983, 『民族運動家 아내의 手記』, 正音社
- 국가보훈처, 2003,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1
- 中央檔案館, 2000, 『華北事變』, 中華書局
- 國家報勳處, 2007, 『李慈海自傳』
- 김광재, 1999, 「중일전쟁기 중국 화북지방의 한인 이주와 ‘노대농장」 『한국근현대  
사연구』11
- 김광재, 2004, 「중일전쟁 이후 북경지역의 한인단체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23
- 박강, 『화북 이주한인과 아편마약 밀매』, 『한국민족운동사연구』55
- 손염홍, 2007, 『북경지역 한인사회 연구』, 국민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손염홍, 2007, 「일제의 중국 화북 침략과 북경지역 한인의 마약문제」 『한국독립운동  
사연구』28

■Abstract ■

## Koreans migration to the Northern China(화북) and their lives before the independence from Japan

Kim, Joo-Yong

The region of the Northern China includes Tianjin, Hebei, Shanxi, Shandong, Henan and Beijing. The region was not only a main activity region of the Joseon Uiyongdae but also an area where many Korean independent fighters moved against Japan in 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Korean communities that independent activists formed around the 3. 1 independent movement in 1919 started to be deformed by Japanese power and pro-Japanese organizations. Like Tianjin, inner mongolia was also thought to be an 'utopia' to establish independent movement base in the 1920s but, after the war, it was not an ideal place any more. Korean community changed into a society to force submission to Japan in the middle of the Japanese invasion and their resistance. Of course, some people could have a chance to assimilate into the Korean mainstream after the independence. 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over period and regional features of Korean community in the Northern China.

First of all, Korean community before the Sino-Japanese war was organized by independent fighters. The center of the Northern China, Beijing and Tianjin were the places that Korean independent movement progressed most vigorously in whole China including Shanghai. And also, they were selected to draw Chinese corporation by Korean fighters. Koreans migrated there by uneasy situation of Manjuria and 3.1 independent movement and developed independent movement. Most of them were poor.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independent

fighters, Lee Hoeyeong was said that he was difficult to keep living even below subsistence level. It shows that many Koreans in the region should endure the position as 'homeless people'. On the other hand, their residential area was expanded to Da dong, Shanxi and Bao tou, Nei menggu.

The main features of the community in the region after the Sino-Japanes war were the invasion of Japan and submission to it. As Japan occupied the region fast, Koreans also migrated and formed new residence there. But their residential expansion caused their submission to Japan. Appearance of little capitalists and the increase of illegal traders such as drug traffickers were much related to Japanese military industry. Korean organizations under the power of Japan or Japanese organizations could not be free from Japanese influence. In particular, as the number of jobless people was growing, the community became changed into an unhealthy and distorted society.